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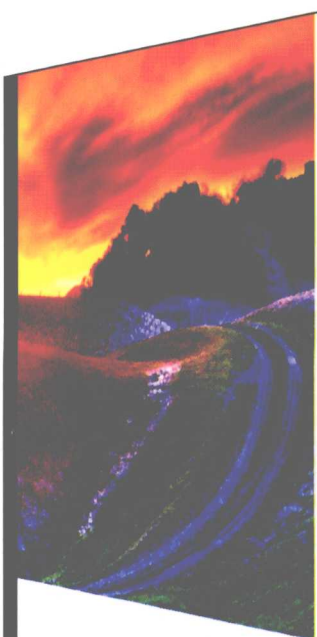
무

명

无明

●李光洙／著 ●权赫律／编译

作品名取义佛教术语，描绘了的日帝统治下韩国民族所面临的暗淡、悲剧性的现实。作品以第一人称观察者的视角，客观地展现了尹氏、敏、郑氏、姜等在生活中极限空间——监狱里的生活百态，试图以此来触发民族的自我觉醒和人类的善良品性。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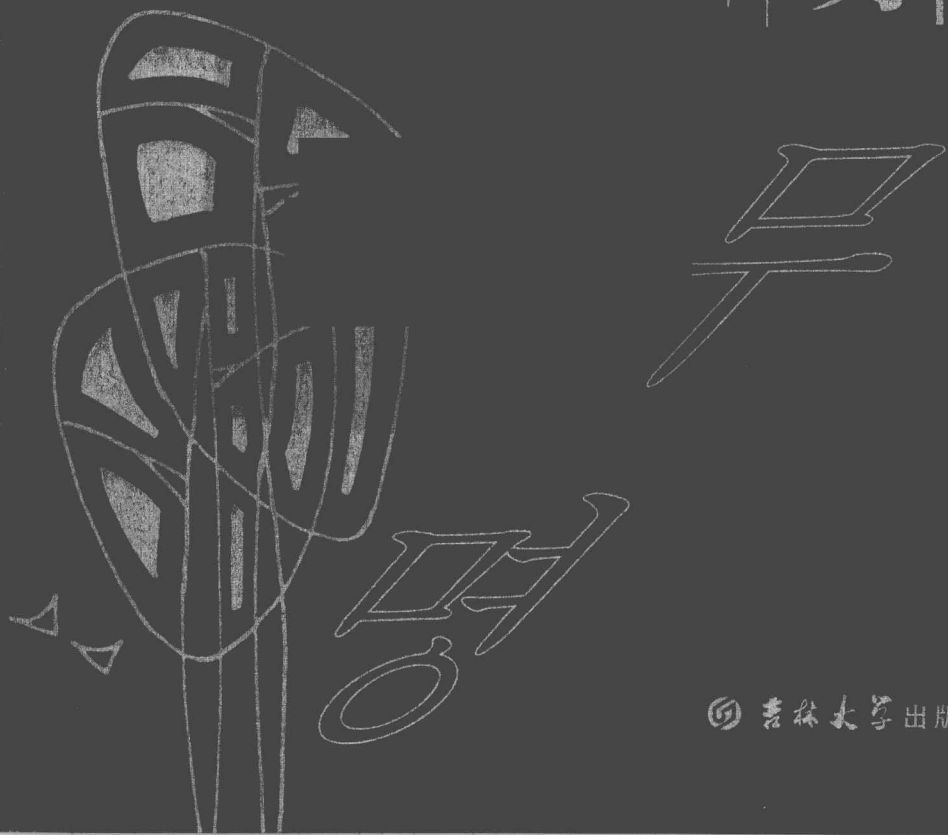


无明 무명
受难两代 수난이대
韩国文学名著 韩汉对照系列丛书

韩国文学名著 韩汉对照系列丛书

无明

● 李光洙 / 著 ● 权赫律 / 编译



◎ 吉林大学出版社

图书在版编目(CIP)数据

无明/(韩)李光洙著;权赫律编译. —长春:吉林大学出版社, 2009.10

(韩国文学名著韩汉对照系列丛书)

ISBN 978-7-5601-5013-0

I. 无… II. ①李… ②权… III. ①朝鲜语—汉语—对照读物
②长篇小说—韩国—现代 IV. H559.4: I

中国版本图书馆CIP数据核字(2009)第190782号

韩国文学名著韩汉对照系列丛书

无明

- | | |
|---------|--|
| ◎作者 | (韩)李光洙 |
| ◎编译 | 权赫律 |
| ◎责任编辑 | 张显吉 徐佳 |
| ◎责任校对 | 张显吉 徐佳 |
| ◎封面设计 | 张沫沉 |
| ◎版式设计 | 张沫沉 |
| ◎出版发行 | 吉林大学出版社 |
| ◎社址 | 长春市明德路421号 |
| ◎邮编 | 130021 |
| ◎发行部电话 | 0431-88499826 |
| ◎网址 | http://www.jlup.com.cn |
| ◎E-mail | jlup@mail.jlu.edu.cn |
| ◎印刷 | 长春市利源彩印有限公司 |

版权所有 翻印必究

150mm×230mm 16开 9.75印张 98千字

2010年1月第1版 2010年1月第1次印刷

ISBN 978-7-5601-5013-0

定价: 15.00元



차례

目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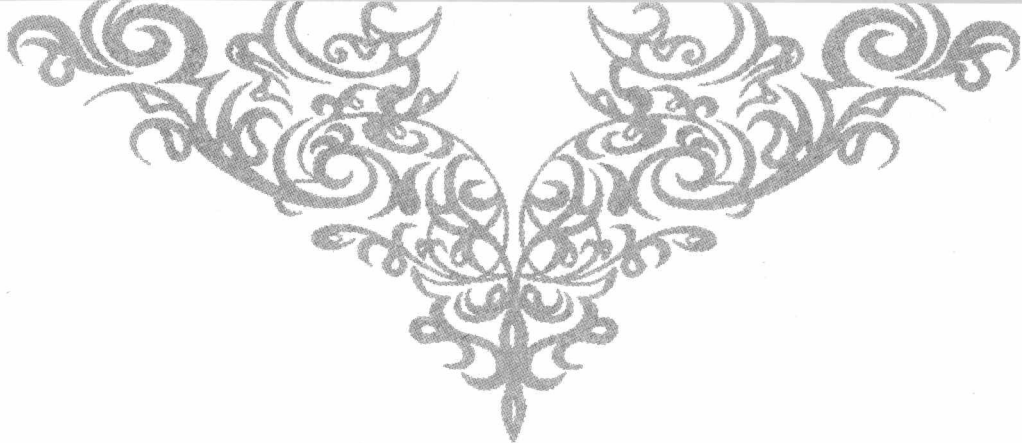
무 명

无 明..... 1

수난이대(受難二代)

受难两代..... 121





무 명

无 明

李光洙著·权赫律译

입감한 지 사흘째 되던 날, 나는 병감으로 보냄이 되었다. 병감이래야 따로 떨어진 건물이 아니고, 감방 한편 끝에 있는 방들이었다. 내가 들어간 곳은 일반이라는 방으로, 서쪽 맨 끝 방이었다. 나를 데리고 온 간수가 문을 잠그고 간 뒤에 얼굴 희고 눈 맑ومت맑ومت한 간병부가 나더러

“앉으시거나 누우시거나 자유예요. 가만가만히 말씀도 해도 괜찮아요. 말소리가 크면 간수한테 걱정 들어요.”

하고 이르고는 내 번호를 따라서 자리를 정해주고 가버렸다. 나는 간병부에게 고개를 숙여 고맙다는 뜻을 표하고 나보다 먼저 들어와 아 | 쓰는 두 사람을 향하여 고개를 숙여서 인사를 하였다.

이때에 바로 내 곁에 있는 사람이 옛날 조선식으로 내 팔목을 잡으며

“아이고 진상이시오. 나 윤○○이에요.”

하고 곁방에까지 들릴 만한 큰 소리로 외쳤다.

나도 그를 알아보았다. 그는 C경찰서 유치장에서 십여 일이나 나와 함께 있다가 나보다 먼저 송국된 사람이다. 그는 뻐뻐 마르고 목소리만 크고 말끝마다 ○대가리라는 말을 쓰기 때문에 같은 방 사람들에게 ○대가리라는 별명을 듣고 놀림감이 되던 사람이다. 나는 이러한 기억이 날 때에 터지려는 웃음을 억제하기가 매우 어려웠다. 윤씨는 옛날 조선 선비들이 가지던 자세와 태도로 대단히 점잖

进监狱后的第三天，我就被转到了病号房。其实，病号房也不是在另外的一栋楼，而设在普通牢房走廊的尽头。我的病号房在走廊西边的尽头，也算是其中较为不错的一间。领着我来的看守锁上门离开后，皮肤白皙，眼睛明亮的看病夫跟我说：

“躺着，坐着随便。可是，说话要轻点，要不看守会怪罪下来的。”

看病夫给我病号番号，并指定床位后，离开了病房。我向离开的看病夫颌首表示谢意后，又向已经在病号房里的两人点头致了意。

这时，紧挨着我坐着的那个人按照古代朝鲜的礼节，拉着我的胳膊，叫道：

“哎呀，这不是金上（日语称呼，下称老金——译注）吗？我是尹××啊！”

他的声音很高，连隔壁的人都能听得见。

我也认出了他。我和他曾在C警署拘留所一起被关押了十多天，他比我早几天移交了检察机关。他骨瘦如柴，嗓门很大，说话经常带“××头”的口头禅，所以，当时曾被同牢房的人们戏称为“××头”。想到这里，我强按捺住了发笑。尹氏效仿古朝鲜儒生的姿态，很斯文地对我进监狱表示了遗憾，并向旁边叫做“敏”的皮包



무 명

게. 내가 입감된 것을 걱정하고 또, 곁에 있는 ‘민’이 라는 껍질과 뼈만 남은 노인에게 여러 가지 칭찬하는 말로 나를 소개하고 난 뒤에 퍼령 미결수 옷 앞자락을 벌려서 배와 다리를 온통 내놓고 손가락으로 발등과 정강이도 찢어보고 두 손으로 뱃가죽도 잡아당겨보면서.

“이거 보세요. 이렇게 전신이 부었어요. 근일에 좀 내린 것이 이 꼴이오. 일동 팔방에 있을 때에는 이보다는 더했는디.”

전라도 사투리로 제 병 증세를 기다랗게 설명하였다. 그는 마치 자기가 의사보다 더 잘 자기의 병 증세를 아는 것같이. 그리고 의사는 도저히 자기의 병을 모르므로 자기는 죽어 나갈 수밖에 없노라고, 자탄하였다. 윤씨 자신의 진단과 처방에 의하건대. 몸이 부은 것은 죽을 먹기 때문이요. 열이 나고 기침이 나고 설사가 나는 것은 원통한 죄면을 쓰기 때문에 일어나는 화기라고 단언하고, 이 병을 고치자면 옥에서 나가서 고기와 술을 잘 먹는 수밖에 없다고 중언부언한 뒤에 자기를 죽이는 것은 그의 공범들과 의사 때문이라고 눈을 흘기며 소리를 질렀다.

윤씨의 죄라는 것은 현 모(玄某), 임 모(林某) 하는 자들이 공모하고 김 모(金某)의 토지를 김 모 모르게 어떤 대금업자에게 저당하고 삼만오 원의 돈을 얻어 쓴 것이라는데, 윤은 이 공문서, 사문서 위조에 쓰는 도장을 파준 것이라고 한다. 그는,

“현가 놈은 내가 모르고 임가 놈으로 말하면 나와 절친한 친고닝게, 우리는 친고 위해서는 사생을 가리지 않는 성품이닝게. 정말 우리는 친고 위해서는 목숨을 아니 애끼는 사람이닝게, 도장을 파주었지랴오. 그래야 진상도 아시다시피 내가 돈을 한 푼이나 먹었는기오? 현가 놈 임가 놈 저의들끼리

骨头的老人，夸奖了我一番。然后，他敞开自己的暗绿色被告服，露出肚皮和腿，用手指按了按脚背和胫骨部位，还扯拉了一下肚皮，说道：

“您看看，全身都是浮肿。这还算好转了一些。在一栋8号房的时候，比这还严重呢。”

他用全罗道方言，就自己的病情啰嗦了一通。好像他比医生更了解自己的病情，好像医生根本不懂自己的病势，所以，他只能等待宣告死亡云云。他不停地向我哀叹自己眼前的状况。根据尹氏自己的诊断和开出的处方，自己的浮肿是因为天天吃稀饭，才有的症状；发热和咳嗽加腹泻，是因为被冤枉后的闷气使然。他还称，要根治这些症状，只有走出狱门，尽情地服用酒肉，别无他法。他煞有其事地反复嚷嚷，自己的共犯和医生，是谋害自己的罪魁祸首。

尹氏的罪名是，参与了由玄某、林某共同主谋，背着地主金某，把土地当给某放贷者，诈取三万余元的案件。据说，在整个案件中，尹氏只充当了提供伪造文书所需要的图章的角色。他不无炫耀地说：

“姓玄的家伙，我根本就不认识。那姓林的家伙，倒是我的老朋友。我这个人啊，就是为朋友可以两肋插刀的性格，真的，为朋友我绝不会缩头缩脑的，就给他刻了图章。只是刻了图章，其实，老金也明白，我哪里要了他们一分

무 명

수만 원 돈을 다 처먹고, 윤○○이 무슨 죄란 말이야?”

하고 뽐내었다.

그러나 윤의 이 말은 내게 하는 말이 아니요. 여태까지 한방에 있던 ‘민’더러 들으라는 말인 줄 나는 알았다. 왜 그런가 하면 경찰서 유치장에 있을 때에도 첫날은 지금 이 말과 같이 뽐내더니 마는 형사실에 들어가서 두어 시간 겪을 것을 겪고 두 어깨가 축 늘어져서 나오던 날 저녁에 그는 이 일이 성사 되는 날에는 육천 원 보수를 받기로 언약이 있었던 것이며, 정작 성사된 위에는 현가와 임가는 윤이 새긴 도장은 잘되지를 아니하여서 쓰질 못하고, 서울서 다시 도장은 새겨서 썼노라고 하며 돈 삼십 원을 주고 하룻밤 술을 먹이고 창기집에 재워주고 하였다는 말을, 이를 갈면서 고백하였다. 생각건대는 병감에 같이 있는 민씨에게는 자기가 무죄하다는 말밖에 아니 하였던 것이 불의에 내가 들어오매 그 뒷수습을 하느라고 예방선으로 이런 소리를 하는 것이라고 나는 생각하고 또 한 번 웃음을 억제하였다.

껍질과 뼈만 남은 민씨는 밤낮 되풀이하던 소리라는 듯이 윤이 열심히 떠드는 말을 일부러 안 듣는 양을 보이며 해골과 같은 제 손가락을 들여다보고 앉았다가 끙 하고 일어나서 똥통으로 올라간다.

“또, 똥질이야?”

하고 윤은 소리를 꺾 지른다.

“저는 누구만 못한가?”

하고 민은 끙끙 안간힘을 쓴다.

똥통은 바로 민의 머리말에 놓여 있는데 볼 때마다 칠 아니 한관을 연상케 하였다. 그 위에 해골이윤은 다 된 민이 올라앉아서 끙끙 대는 것이 꺾이나 비참하게 보였다.

钱？那姓玄的，还有姓林的，嘀嘀咕咕自个儿吞掉了那几万块钱，关我尹××什么事儿啊？”

我明白他的这一番话，并不是说给我听的，而是给一直和他住在一起的“敏”听的。但是，我心里却是明镜似的。他跟我被关在警署的时候，第一天也像刚才那样趾高气扬，拍着胸脯喊自己如何清白，可是，当被拉到审讯室两个多时辰，经历了一些必须的过程之后，便耷拉着双肩承认了当初约定事成之后，他也获取六千元报酬的事实。结果事成之后，玄某和林某借口尹氏刻下的图章不好使，在首尔另外刻了一个为理由，只给他三十元钱并拉去喝酒、逛窑子应付了事。当时，他向我咬牙切齿地说出了自己被共犯耍弄的遭遇，可能还没有跟现在的病友说真相。现在我突然出现在眼前，他生怕知道真相的我，无意当中揭他的底，才说了这么一大堆。想到这里，我觉得忍俊不禁，又一次强按捺住了发笑。

皮包骨头的敏，对尹氏的夸夸其谈似乎已司空见惯，一开始就竭力装作满不在乎的样子，只盯着自己那与白骨没有两样的手指，一会儿哼地一声站起身，坐到了粪桶上。

“又来了，拉臭屎。”

尹氏见状，大声斥责道。

“你能强到哪儿去啊？”

敏在那儿一边哼哼地使劲，一边应道。

那粪桶就放在敏的枕边，那样子极易使人联想未上漆的棺材。皮包骨头的敏，坐在那里哼哼的样子，真的有些惨不忍睹。尹氏用他那细长

무 명

윤은 그 가늘고 날카로운 눈으로 민의 앙상한 목덜미를 흘겨보며,

“진상요. 글썸 저것이 타작을 한 팔십 석이나 받는다
는디. 또 장남 한 자식이 있다는디. 또 열아홉 살 된 여
편네가 있다나요. 그런데두 저렇게 제 애비, 제 서방이 다
죽게 두어두, 어리친 강아지새끼 하나 면회도 아니 온단
말씀이지라오. 옷 한 가지, 뵤또 한 그릇 차입하는 일도
없고. 나는 집이나 멀지. 인제 보아. 내가 편지를 했으니까.
그래도 내 당숙이 면장이오. 그런데 저것은 집이 시흥이하
는디 그래, 계집년 자식새끼 얼씬도 안 해야 옳남? 흥, 그
래도 성이 민가라고 양반 자랑은 허지. 민가문 다 양반이어?
서방도 모르고 애비도 모르는 것이 무슨 빌어먹다 죽을 양
반이어?”

윤이 이런 악담을 하여도 민은 들은 체 못 들은 체.
인제는 끽소리도 아니 하고 멀거니 앉아 있는 것이 마
치 똥통에서 내려오는 것을 잊어버린 것 같았다.

민은 대답 없는 것이 더 화가 나는 듯이 윤은 벌떡 일
어나더니 똥통 곁으로 가서 손가락으로 민의 옆구리를 꼭
찌르며.

“글썸 내가 무어랬어? 요대로 있다가는 죽고 만다닝
게. 먹은 게 있어야 똥이 나오지. 그까진 쌀뜨물 같은 미
음 한 모금씩 얻어먹는 것이 오줌이나 될 것이 있어? 어서
내 말대로 집에다 기별을 해서 돈을 갖다가 우유도 사먹고
닭알도 사먹고 그래요. 돈은 다 두었다가 무엇 하자닝 게여?
애비가 죽어가도 면회도 아니 오는 자식 녀석에게 물려줄
양으로? 흥, 흥. 옳지, 열아홉 살 벅은 기집이 젊은 서방
얻어서 재미있게 살라고?”

하고 민의 비위를 박박 긁는다.

且充满杀气的眼睛，瞟了一眼敏那枯瘦的脖颈，说道：

“我说老金啊，据说啊，这家伙一年收获八十担粮食呢。家里还有强壮如牛的儿子、十九岁的老婆呢。可你看，自己的爹，自己老公，都快要死了，连家里的狗都没见来一回。也没看见有人送来一件衣服，一顿像样的饭菜。我呢，就是家离得太远。再过几天瞧，我已经发了封信，我那堂叔至少能寄来三十元，我堂叔是个村长呢。可，这家伙家就在始兴啊，那娘们和小崽子怎能一次都不来？哼，还炫耀自己姓敏，是两班家族。天下姓敏的，都是两班家族？老公的死活都不管，自己爹都不认，算个什么东西，还两班呢。”

尹氏这样的恶语中伤，敏也不闻不问，好像就当了耳旁风。粪桶上的敏，这会儿连声音也不出，好像该从粪桶下来的事儿都忘了一样，只是呆呆地坐在那里。敏的无动于衷，似乎激怒了尹氏。尹氏猛然站起身子，走近粪桶，用手指使劲戳了一下敏的腰际，说道：

“我说什么啦，啊？照这样下去，肯定是个死。不吃不喝的，能拉出东西吗？就喝点像淘米水似的米粥，连尿都不够呢。听我话，快告诉家里拿点钱来，买些牛奶、鸡蛋，补一补。那钱留着干嘛呀？自己的爹快要死了，也不来看看，那还叫儿子？你想把财产传给他？啊哈，对啦，是不是那钱留着给十九岁的你娘们，嫁个好丈夫过日子啊？”

尹氏毫不留情地挖苦着可怜的敏。敏好像

무 명

민도 더 참을 수 없던지.

“글쎄, 왜 걱정이야? 나는 자네 악담과 그 독살스러운 눈깔 딱지만 안 보게 되었으면 좀 살겠네. 말은 해도 헐 말이 다 있지. 남의 아내를 왜 거들어? 그러니까 시굴상것이란 헐 수 없단 말이지.”

이런 말을 하면서도 민은 그렇게 성낸 모양조차 보이지 아니한다. 그 옴팍눈이 독기를 띠면서도 또한 침착한 천품을 보이는 것이었다.

그 후에도 날마다 몇 차례씩 윤은 민에게 같은 소리로 그를 박박 긁었다. 민은 그 소리가 듣기 싫으면 눈을 감고 자는 체를 하거나 그렇지 아니하면 유리창으로 내다보이는 여름 하늘의 구름이 나는 것을 언제까지나 바라보고 있었다. 이렇게 민이 침착하면 침착할수록 윤은 더욱 기를 내어서 악담을 퍼부었다. 그리고 그 끝에는 반드시 열아홉살 된 민의 아내를 거들었다. 이것이 윤이 민의 기를 올리려 하는 최후 수단이었으니 민은 아내의 말만 나면 양미간을 찡기며 한두 마디 불쾌한 소리를 던졌다.

윤은 아무리 민을 긁어도 민이 못 들은 체하고 도무지 반향이 없으면 윤은 나를 향하여 민의 험구를 하는 것이 버릇이었다. 도무지 민이 의사가 이르는 말을 아니 듣는다는 말, 먹으라는 약도 아니 먹는다는 둥, 천하에 각쟁이라는 둥, 한량없이 이런 소리를 하였다. 그러다가 제가 졸리거나 밥이 들어오거나 해야 말을 끊었다. 마치 윤은 먹고 민을 목 견디게 굴고, 똥질하고, 자고, 이 네 가지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인 것 같았다. 또 한 가지 있다면 그것은 자기의 병 타령과 공범에 대한 원망이었다. 어찌 했으나 윤의 입은 잠시도 다물고 있을 새는 없었고, 짹짹하는 그 목소리는 가끔 간수의 꾸지람을 받으면서도 간수가 돌

也有些忍无可忍了，顶了一句：

“怪了，你瞎操什么心啊？要是听不见你那恶语，看不见你那狗眼，也许我还真能多活一阵子呢。还侮辱别人妻子，你想干嘛呀，你。乡下贱民，真是没教养。”

敏口中说着这话，表面却很安静，没有暴跳如雷。他那深陷的眼睛里，虽然含着一股杀气，却表现出了沉着的性格。

此后，尹氏每天都反复着对敏的恶语中伤。敏不愿意听那些恶语，就闭上眼睛佯装睡觉，或者呆呆地眺望窗外盛夏天空中飘着的云彩。敏表现得越是无动于衷，尹氏对他的辱骂就越升级，最后，必然又会骂到敏的十九岁的妻子。这是尹氏试图惹敏发火的最后手段，但是，每当这样的时候，敏也只是皱着眉头，不快地说上两句了事。

尹氏如何挖苦敏，对方也毫无反应或者抵抗，那么，尹氏就开始向我数说敏的种种坏话。什么敏从来就不听医生的忠告，从来没有按医嘱吃过药，是个天下第一铁公鸡，敏的鼻尖发红是因为快到了死期，敏的妻子肯定已经搞上了年轻小伙等等，尽是些不着边际的话。直到自己犯困了，或者到了饭点，他才肯中止唠叨，好像他是个只为了吃饭，折磨敏，拉屎，睡觉等四件事而活着的人。如果说还有一件事，那就是唠叨自己的病情和对共犯的埋怨。反正，尹氏的嘴巴从来都不会闲着，他因那尖细的声音，常常被看守责



무 명

아선 위에는 곤, 그 찹찹거리는 목소리로 간수에게 또 욕설을 퍼부었다.

나는 윤 때문에 도무지 맘이 편안하기가 어려웠다. 윤의 말은 마디마디 이상하게 사람의 신경을 자극하였다. 민에게 하는 악담이라든지, 밥을 대할 때에 나오는 형무소에 대한 악담, 의사, 간병부, 간수, 자기 공범, 무릇 그의 입에 오르는 사람은 모조리 악담을 받는데 말들이 칼끝같이 바늘끝같이 나의 약한 신경을 찔렀다. 내가 가장 원하는 것은 마음에 아무 생각도 없이 가만히 누워 있는 것인데, 윤은 내게 이러한 기회를 허락지 아니하였다. 그가 재재거리는 말이 끝이 나서 ‘인제 살아났다’하고 눈을 좀 감으면 윤은 코를 골기 시작하였다. 그는 두 다리를 벌리고 배를 내놓고 베개를 목에다 걸고 눈을 반쯤 뜨고 그러고는 코로 골고, 입으로 불고, 이따금 꺽꺽 숨이 막히는 소리를 하고 그렇지 아니하면 백일해 기침과 같은 기침을 하고 차라리 그 잔소리를 듣는 것이 나은 것 같았다. 그럴 때면 흔히 민이,

“어떻게 생긴 자식인지 깨어서도 사람을 못 견디게 굴고 잠이 들어서도 사람을 못 견디게 굴어.”

하고 중얼거릴 때에는 나도 픽 웃지 아니할 수 없었다.

“저 배 가려. 십오 호, 저 배 가려. 사타구니 가리고. 웬 낮잠을 저렇게 자? 낮잠을 저렇게 자니까 밤에는 똥통만 타고 앉아서 다른 사람을 못 견디게 굴지.”

하고 순회하는 간수가 소리를 지르면 윤은,

“자기는 누가 잔것이오?”

骂。但是，看守一转身离开，他就用那尖细的嗓音大骂看守。

我也因为这个尹氏，终日不得安宁。尹氏说出的每一句话，好像都是为了刺激别人的神经而编造的一样，句句如针尖刺痛着我脆弱的神经。尹氏的恶语不仅有针对敏的，吃饭的时候目标就会换成拘留所，换成医生、看病夫、看守、自己的共犯，反正成为他目标的全被他骂得体无完肤。我希望能够排除一切干扰，躺着安静地休息，可尹氏从来就不给我这样的机会。偶尔他的嘴也有闭上的时候，可是，刚想到“这下该安静了”，那边马上就响起尹氏如雷般的鼾声。他肆意张开两条腿，敞开肚子，枕着枕头，半睁着眼睛，在那里旁若无人地打呼噜。他在睡觉的时候也很闹人，一会儿因堵塞气管吭哧半天，一会儿喷出像闹百日咳的患者一样的咳嗽，还真不如听他的唠叨更舒服一些。每当这个时候，敏就常说：

“真不知是个什么东西，醒了折腾人，睡觉时也折腾人。”

敏这样自言自语的时候，我也情不自禁地露出表示同感的笑。

“把肚子盖上，十五号。盖上肚子，裤裆也盖上。这叫什么姿势啊？白天那样睡觉，难怪一到夜里，就坐在粪桶上下不来，净折腾人。”

巡查的看守一喊，尹氏就摸一摸自己的肚子和裤裆，辩解道：

“谁睡觉了？这是窝火，发烧，热的。”